

인천 “중앙공원 보행육교 2곳 이름 지어주세요”

29일까지 3-4지구·4-5지구... 시민 모바일·인터넷 설문조사 통해 선정

인천시는 중앙공원에 조성한 보행육교 2개소의 명칭을 시민 설문 조사를 통해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도심 상업지구 내 위치한 중앙공원을 상징성 있는 공간으로 재 정비하고 경쟁력을 가진 중심공원으로 구축할 방침으로, 2020년 조성된 3-4지구와 4-5지구 보행육교 2개소에 대한 이름을 짓기로 했다.

전문가들이 추천한 참신하고 독창적이며,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워 지속가능한 명칭 중에서, 시민들의 설문을 통해 최종 명칭을

결정한다.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인터넷 및 모바일(QR코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를 거쳐 다음달 8일 최종 결정하며, 설문조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10만원)도 지급한다.

최도수 시 도시재생복지국장은 “모두가 부르기 쉽고 친근한 중앙공원 보행육교의 이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남은 중앙공원 지구간 연결을 통해 생동감 있는 도시 활

동, 만남과 소통, 접촉과 교류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공원은 인천터미널 맞은편(미추홀구 관교동)부터 인천 문화예술회관과 인천시청역을 지나 웨슬리 희망동산(남동구 간석동)까지 길게 이어져 있는 3.9km의 도심공원이다. 인근에 인천시청을 비롯, 백화점, 경찰서, 아파트 등이 입주해 있어 유동인구 뿐만 아니라 거주 주민들에게도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천/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

인천시의회, 해양 우수지역 현장 학습

20~23일까지... 고품질 의정활동 위한 의원 교육 연수

인천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정책중심 의회 구현과 고품질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교육연수를 떠난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시민을 위한 정책역량 및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연수는 상반기 선거 일정, 하반기 연속적인 회기 집중 등으로 별도 교육일정을 편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제279회 임시회' 종료일(7월19일) 직후 시의원의 정책역량 개발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 차원에서 마련했다.

교육은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조례 발의 및 심의 등 맞춤형 의원 직무교육과 함께 인천형 해양도시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자 울산·부산·여수·광양 등 국내 해양도시 개발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학습도 포함했다.

더불어 울산·부산시의회 의장단, 부산시 남구청장,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과 해양도시 개발사업 관련 간담회도 총 4회 실시하는 등 이틀간과의 향후 정책공조 및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울산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우수 항만 관계기관의 현장 설명회(5회)도 준비돼 있어 앞으로 항만도시 인천으로 거듭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우수 사례들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을 비롯한 시의원, 인천시장, 구청장(군수), 구(군)의원 및 교육감 등의 공약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및 토론시간을 별도 편성해 지역발전을 위한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허식 의장은 “제9대 인천시의회는 조선의원이 35명으로 전체 의원의 88%를 차지하고 있어 하반기에 집중된 의회 회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직무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시 집행부와 의정공조 및 협치를 위한 시의회 정책역량 제고는 물론 고품질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전문성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



인천시 강화군은 1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부군수,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민선 8기 핵심 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

유천호 강화군수, 7월 간부회의서 당부

인천시 강화군은 1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부군수,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천호 군수는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증가함에 따라 재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유

관부서들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 추진, 7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고품격 외식업소 조성 및 시설개선 지원,

수산물 포장용기 지원, 국가암검진 홍보, 강화 농업아카데미 교육 추진, 마을 안길 및 농로 교통환경 개선 등 다양한 현안과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유천호 군수는 “민선 8기 핵심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각종 불편사항을 군민의 눈높이에서 하나씩 개선해 모든 군민이 함께 잘 사는 강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

강화/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

동구, 흡연·음주 예방 샌드아트 공연 진행

유치원·초교 등 16개교 아동 대상... 올바른 건강 가치관 정립

인천시 동구는 오는 10월까지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총 16개교 아동을 대상으로 흡연·음주 예방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을 제공한다

최근 흡연·음주 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흡연·음주 환경에 노출되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어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샌드아트를 통해 흡연과 음주에 대한 경각

심을 일깨우고 올바른 건강 가치관의 정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공연을 계획했다.

구는 지난 13일 영화초등학교에서 첫 공연을 개최했으며 앞으로 18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해 총 3200여 명의 아동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공연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구/유용준 기자 yjyou@shinailbo.co.kr



인천시 연수구는 제2의료원과 인천대 공공의대 연수구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담은 14만3954명의 서명부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인천대 공공의대·제2의료원 유치 ‘총력전’

연수, 구민 14만3954명 서명부 시에 제출

인천시 연수구는 제2의료원과 인천대 공공의대 연수구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담은 14만3954명의 서명부를 인천시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 제2의료원·인천대 공공의대 유치 민·관추진위는 지난 14일 인천시를 방문해 거리서명 운동 등을 통해 접수된 구민 서명부를 직접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서명부는 지난 4개월 동안 거리서명과 유튜브, 구홈페이지, SNS 홍보 등과 연계해 접수한 오프라인 9만9585명, 온라인 3만3520명, 080전화 1만849명 등 총 14만3954명 분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빈틈없는 시민 의료안전망 구축과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2의료원 신설 필요성을 인식하고 군·구별 추천 부지 수요 조사에 이어 지난 3월부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편 구민 서명부 전달식은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 등을 감안해 전달 인원을 최소화하고 민·관추진위 최태환 위원장, 라진규 운영위원장, 권영선 보건행정과장 등 5명이 인천시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 관계자는 “시에서 추진하는 제2의료원 설립에 대한 연수구민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공정하게 제2의료원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민·관추진위 관계자도 “40만 연수구민 중 14만3954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통해 인천 제2의료원의 유치를 염원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낸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해 인천 제2의료원이 구에 건립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연수/김경용 기자 skydiver6178@naver.com

부평, 학교 밖 청소년 운전면허 취득 돕는다

청소년지원센터, 취업경쟁력 강화·효과적인 사회진출 지원

인천시 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오는 29일까지 ‘운전면허 1종 보통 자격취득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18일 센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후기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효과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지역에 위치한 청소년 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소속 만 18~24세 취약 계층 학교 밖 청소년이다. 아울러 구 직할동,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나 부평구 소재 청소년쉼터 기관장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참여자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운전면허 교육을 이수한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직업상담사를 통해 자

격증 관련 직종에 대한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센터 방문이나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급식비, 교통비, 자격취득 등 다양한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과정이 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발판이 돼 취업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상담 지원, 학업지원, 진로지원, 개발지원, 건강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평/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

남동, 소규모 영세음식점 시설 개선비 지원

업소별 최대 60만원... 주방환기시설·키오스크 등 설치

인천시 남동구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부터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일반·휴게 음식점 30곳을 선정하고 업소별로 주방 환기시설(22개소)과 입식 테이블 교체(7개소), 키오스크 설치(1개소) 등의 비용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시설개선에 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영세음식점이 위생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2020년부터 3년째 진행 중이다.

업소별 최대 60만원을 구에서 지원(시설개선 비용의 20% 자부담)하며 올해는 모두 1670여만원이 투입됐다. 사업에 참여한 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항목(편의성·위생 수준·서비스 품질 향상, 재참여 의향, 사업 만족도)에서 모두 98점 이상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시설개선 범위를 확대해 외식업계 위생적인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

인천교육청, 사펠드미앙서
마을교육학습공동체 워크숍

인천시교육청은 마을교육학습공동체 대표 및 회원, 컨설팅 지원단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펠드미앙 연회실에서 '2022 마을교육학습공동체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1부 권역별 모임과 2부 인천 전역 통합별 모듈 구성으로 마을교육학습공동체 간 학습 내용과 연차별 활동 계획을 교류하며 동반성장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마을교육학습공동체는 다양한 마을교육 의제에 대한 자발적, 주체적 학습 동기를 바탕으로 구성된 행정동별 학습 모임이다. 마을교육활동가의 역량 강화와 동단위의 마을 교육력 제고를 위해 3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01개 팀이 선정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생활하는 마을이 배움터가 되는데 마을교육학습공동체가 큰 역할을 했다”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천/김수역 기자 kimeog@naver.com

미추홀, 버스 무정차

정류소 질서문란 단속

인천시 미추홀구는 오는 22일까지 버스 무정차 통과 및 정류소 질서문란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인천종합터미널,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등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스 무정차 통과 및 버스정류소 질서 문란 행위 등 시민 안전과 운송 질서를 해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다. 구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 내 여객법 위반 행위 단속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병행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 교통민원 근절 캠페인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등 관련 제도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위반행위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추홀구/유용준 기자 yjyou@shinailbo.co.kr

계양,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컨설팅 실시

인천시 계양구는 지난 14일 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계획,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는 제도이다.

이번 컨설팅은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인천양성평등센터 전문 상담사를 초청해 1:1 대면으로 진행했으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28개 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성평등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절한 개선안 도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계양/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